



Narcissus-Interaction

최미진 Mijin Choi

Apple Developer Academy @POSTECH / Republic
of Korea

Narcissus-Interaction is an interactive media artwork inspired by Narcissus. It offers people an experience of encountering themselves in the interaction between two different spaces. This leads people to recognise a disconnection between the physical space in which they exist and the screen they are entangled with. Depending on the distance detected by the ultrasonic sensor, wave video and real-time video in the monitor are blended. Away from the artwork, participants can hear waves and see the wave video. As they are closer to the display, participants face themselves in the wave video without any sound.

Narcissus-Interaction은 나르키소스의 신화에 기반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모니터 위에서 얹힌 상태로 마주한다. 이 작품은 물리적 접촉이 차단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자기애’의 시간을 시청각적으로 구현한다. 모니터에서는 소리를 포함한 영상이 반복적으로 재생된다. 그리고 참여자가 작품과 2미터 이내로 가까워졌을 때, 오디오는 멈추고 영상과 참여자를 비추는 카메라 영상은 블렌딩 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가 그들이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 속 모니터라는 또 다른 공간 안에 얹혀있는 자신을 마주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상호작용하는 거리에 따라 공간 사이의 단절을 인식하도록 이끈다.

